

## 《群書治要》의 일본 전래

김 광 일\*

<目次>

- |                    |                       |
|--------------------|-----------------------|
| I. 《群書治要》의 문헌 특성   | IV. 유학생 출신의 중국문헌 전문가들 |
| II. 《群書治要》의 逸失     | V. 菅原家와 《群書治要》의 講授    |
| III. 遣唐使와 중국문물의 수입 | VI. 결 론               |

### I. 《群書治要》의 문헌 특성

《군서치요(群書治要)》는 정관(貞觀) 5년(631) 당(唐) 태종(太宗)의 칙명으로 편찬된 비교적 특수한 형식의 책으로, 기존 68종의 문헌에서 국가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새롭게 50권으로 편집한 절초회편(節抄匯編)이다.<sup>1)</sup>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군서치요”라는 명칭도 “여러 책[群書]”에서 “치국의 핵심적인 사항[治要]”을 뽑아내었다는 의미이다.<sup>2)</sup> 《군서치요》가 편찬된 정관5년은 수말당초(隋末唐初)의 대혼란이 서서히 수습되고, 당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체제가 자리잡기 시작한 시기로서, 당 황실의 입장에서는 국가 통치의 일반적 원리를 검토하고 그 구체적 운영에 대한 참고체계를 수립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우선적

\* 復旦大學 中文系 博士課程

- 1) 《唐會要》卷三十六 <修撰>: “貞觀五年九月二十七日, 秘書監魏徵撰《群書治要》上之。(太宗欲覽前王得失, 爰自六經訖於諸子, 上始五帝下盡晉年, 徵與虞世南、褚亮、蕭德言等始成凡五十卷上之。諸王各賜一本.)”
- 2) 魏徵, <群書治要序>: “爰自六經訖乎諸子, 上始五帝下盡晉年, 凡爲五裘, 合五十卷, 本求治要, 故以治要爲名.”

으로 필요했다. 그러한 작업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군서치요》인 것이다.

사실, 중국의 황실에서 전대(前代)의 여러 문헌들을 재편집하여 일종의 국정 운영의 매뉴얼을 작성하는 전통은, 위(魏)나라 조비(曹丕)의 명령으로 편찬된 《황람(皇覽)》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sup>3)</sup> 하지만 《황람》과 같은 유서(類書)의 형식은 여러 문헌에서 발췌한 구절을 내용적 연관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주제 항목에 따라 재배치하는 것이어서, 위징이 비판한 것처럼, 글의 앞뒤가 섞이고 문맥이 끊긴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때문에 어떤 사안이나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sup>4)</sup> 이러한 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군서치요》는 여러 문헌에서 절초한 부분을 서로 섞지 않고 원서의 서명과 편명에 따라 배치한다. 이렇게 편집하면 여러 책의 원형과 문맥을 비교적 온전히 유지할 수 있으며, 혹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역으로 원서를 찾아가기에 편리하게 된다.

《군서치요》는 이러한 편집원칙 하에 경부에 속하는 문헌 12종, 사부 문헌 8종,<sup>5)</sup> 자부 문헌 48종을 그 성서(成書)의 연대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다. 물론 각 문헌의 분류와 성서 연대는 《군서치요》 편찬 당시의 문헌지식을 반영한 것으로서, 현재의 일반적인 분류기준이나 성서연대 비정(比定)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군서치요》의 전체적인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 물론 비슷한 성격을 지니면서 《皇覽》보다 더 오래된 책으로 《呂氏春秋》를 들 수 있지만, 《呂氏春秋》의 경우는 漢代에 전적을 정리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문헌이다. 즉 《呂氏春秋》의 시대에는 아직 대부분의 문헌들이 고정된 상태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고정된 기존의 문헌들을 재편집해 새로운 책을 만든 것은 《皇覽》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 4) 魏徵, 위의 글: “《皇覽》遍略, 隨方類聚, 各目互顯, 首尾淆亂, 文義斷絕, 尋究爲難.”
- 5) 《群書治要》에서는 《三國志》를 《魏志》, 《蜀志》, 《吳志》로 나누고 있어, 현재의 문헌 감각으로 보면 史部에서 6종의 서적을 절초하고 있다.

經 部			
卷1	《周易》	卷6	《春秋左氏傳》下
卷2	《尚書》	卷7	《禮記》
卷3	《毛詩》	卷8	《周禮》, 《周書》, 《國語》, 《韓詩外傳》
卷4(闕)	《春秋左氏傳》上	卷9	《孝經》, 《論語》
卷5	《春秋左氏傳》中	卷10	《孔子家語》

史 部			
卷11	《史記》上	卷21	《後漢書》一
卷12	《史記》下, 《吳越春秋》	卷22	《後漢書》二
卷13(闕)	《漢書》一	卷23	《後漢書》三
卷14	《漢書》二	卷24	《後漢書》四
卷15	《漢書》三	卷25	《魏志》
卷16	《漢書》四	卷26	《魏志》
卷17	《漢書》五	卷27	《蜀志》, 《吳志》上
卷18	《漢書》六	卷28	《吳志》下
卷19	《漢書》七	卷29	《晉書》上
卷20(闕)	《漢書》八	卷30	《晉書》下

子 部			
卷31	《六韜》, 《陰謀》, 《鬻子》	卷41	《淮南子》
卷32	《管子》	卷42	《鹽鐵論》, 《新序》
卷33	《晏子》, 《司馬法》, 《孫子》	卷43	《說苑》
卷34	《老子》, 《鶡冠子》, 《列子》, 《墨子》	卷44	《桓子新論》, 《潛夫論》
卷35	《文子》, 《曾子》	卷45	《崔寔政論》, 《昌言》
卷36	《吳子》, 《商君書》, 《尸子》, 《申子》	卷46	《申鑒》, 《中論》, 《典論》

卷37	《孟子》, 《慎子》, 《尹文子》, 《莊子》, 《尉繚子》	卷47	《劉廙政論》, 《蔣子》, 《政要論》
卷38	《孫卿子》	卷48	《體論》, 《時務論》, 《典 語》
卷39	《呂氏春秋》	卷49	《傅子》
卷40	《韓子》, 《三略》, 《新語》, 《賈子》	卷50	《袁子書》, 《抱朴子(外篇)》

《군서치요》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이 책을 편집하면서 특히 역사 문헌을 중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부(史部)의 문헌과 《좌전(左傳)》이 전체적 분량에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서(漢書)》의 비중이 높은 것은 중국 최초의 안정된 통일제국이었던 한나라의 경험이 당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주요한 참고체계였기 때문이었다. 절초된 자부의 문헌들을 《군서치요》와 거의 동시대에 편수된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의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유가류(儒家類)가 17종, 법가류(法家類), 잡가류(雜家類)가 각각 8종, 도가류(道家類), 병가류(兵家類)가 각각 6종, 명가류(名家類), 묵가류(墨家類)가 각각 1종씩이다. 유가 문헌이 많이 선택되기는 했지만, 정치적 통찰을 제공하고 국정 운영에 현실적으로 유용한 생각들을 그 “출신성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채용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편집자의 감식안이다. 즉, 편찬 목적과 의도에 맞추어 어느 책에서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발췌할 것인가의 문제가 《군서치요》와 같은 절초회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인데, 이는 편집자의 문헌에 대한 감식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군서치요》의 편찬에는 위징(魏徵), 우세남(虞世南), 저량(褚亮), 소덕언(蕭德言) 등 당시 일류급 학자이자 고위 관료였던 인물들이 대거 투입된다.

위징은 정관시기 수많은 주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무를 총괄했던 고위 관료로서, 《정관정요(貞觀政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 태종의 정

치적 스승이자 날카로운 비판자였다. 말하자면 당 태종과 더불어 이른바 정관지치(貞觀之治)를 이끌어 나간 한 축이었던 것이다. 우세남, 저량은 모두 남조(南朝) 출신의 학자들로서, 태종의 든든한 썩크탱크였던 진왕부(秦王府) 문학관(文學館) 18학사의 성원이었다. 이들은 진왕(秦王)시절부터 태종 이세민(李世民)을 보필하면서 국가 운영의 이념적 기반과 그에 필요한 실제적 지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관시기 대규모의 문화진흥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핵심역량이었다. 소덕언은 문학관 학사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우세남, 저량과 절친한 남조 출신 문인으로 저작랑(著作郎), 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 태자(太子)의 시독(侍讀) 등 주로 학술과 교육 활동에 치중한 인물이었다. 《군서치요》의 편찬과 관련된 기록이 소덕언의 전기에만 기록된 점을 생각하면,<sup>6)</sup> 완원(阮元)의 추측과 같이 편집의 실무적 작업은 주로 소덕언이 담당했을 가능성도 있다.<sup>7)</sup>

이를 통해 《군서치요》 편찬의 역할 분담을 유추해볼 수 있다. 소덕언과 같은 착실하고 꼼꼼한 학자가 자료와 초고를 마련하고, 당나라 통치 이념의 기초를 마련하였던 우세남과 저량이 그것을 검토한 다음, 당시 권력의 최상층에서 실제 정치를 수행하던 위정이 전체적인 균형을 잡고 서문을 쓰는 작업을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 편찬의 목적, 역량, 실무의 완벽한 삼위일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정관지치를 이끌어 나갔던 핵심적인 인물들이 협동 작업을 통해 자신들의 이념과 지향점을 구체적인 문헌의 형식으로 표현해 낸 것이 《군서치요》였던 것이다.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 《군서치요》의 이러한 정치적 의미는 거의 사

6) 《新唐書》卷198 <儒學>上: “太宗欲知前代得失, 詔魏徵、虞世南、褚亮及蕭德言、袁次經、史百氏、帝王所以興衰者上之, 帝愛其書博而要, 曰: ‘使我稽古臨事不惑者, 公等力也!’ 賚賜尤渥.”

7) 阮元, 《擘經室外集》(叢書集成初編本, 北京: 中華書局, 1991) 卷2: “書實成于德言之手, 故《唐書》于魏徵、虞世南、褚亮傳皆不及也.” 하지만 이를 근거로 소덕언이 《群書治要》 편찬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단언하기는 다소 어렵다. 소덕언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의 경우 정관시기에 맡았던 다른 역사적 역할이 워낙 컸기 때문에, 《群書治要》의 편찬에 참여한 사실이 本傳에서 언급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라졌지만, 그 문헌적 가치는 편찬 당시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정관연간은 당나라가 세계적인 제국이 되는 초석을 닦은 시기로, 국내적으로는 정치의 안정을 이룩하고 대외적으로는 제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가적 문화진흥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후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과거제의 실시, 《오경정의(五經正義)》의 편찬, 이른바 “초당팔사(初唐八史)”라는 역사서의 찬수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예비적인 작업으로 대대적인 도서수집과 정리가 우선 필요했다.<sup>8)</sup> 이때 수집 정리된 책들은 거의 남북조시기의 진본(珍本)이었는데, 《군서치요》 역시 이 시기 황실 비부(秘府)의 진본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즉, 남북조시기의 문헌들을 직접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서치요》의 문헌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군서치요》에 절초된 문헌들은 상당부분 현재의 통행본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통행본들은 주로 송대(宋代) 이후 판각(版刻)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 유통된 판본을 기원으로 하는데, 《군서치요》의 문헌들은 그 이전 사본(寫本) 시대의 원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군서치요》에 절초된 《진서(晉書)》는 당대(唐代) 《진서》를 새로 편수한 이후 일실되었던 장영서(臧榮緒)의 《진서(晉書)》이다. 자부에서는 시교(尸佼)의 《시자(尸子)》, 신불해(申不害)의 《신자(申子)》 등 전국시대의 제자서부터 시작하여 진대(晉代) 부현(傅玄)의 《부자(傅子)》까지 10여 종의 일서(佚書)가 절초되어 있다. 일서뿐만 아니라 《효경(孝經)》의 정주(鄭注)나 《상서(尙書)》의 왕숙(王肅) 주와 같은 일주(佚注)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고대 문헌의 교감(校勘)이나 집일(輯佚)에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군서치요》는 중국에서 남송(南宋) 시기에 이미 일실된다. 중국에서는 오래 전에 사라졌지만,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이 일본에 전래되어 율령시기의 천황가(天皇家), 중세 막부의 장군가

8) 김광일, <<隋書> <經籍志>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中國文學》(서울: 한국중국어문학회, 2008) 제56집 참조.

(將軍家) 등에서 존송되면서 면면히 전승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 《군서치요》에 대한 연구가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이다. 특히 일본에 남아있는 《군서치요》의 여러 현존본의 경우 각각 일본문화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학, 판본학, 인쇄문화사학, 교육사 등의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 책이 어떻게 일본으로 전래되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 전래의 구체적인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방증자료를 이용해 《군서치요》의 일본 전래의 구체적인 정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중국과 일본 사이 문화교류의 매개체, 중국의 정치사회적 여건, 중국내에서 《군서치요》가 일실되는 경과, 일본에서의 《군서치요》 열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군서치요》 일본 전래의 개연성이 높은 두 가지 경우를 도출할 수 있다.

## II. 《群書治要》의 逸失

《군서치요》의 일본 전래를 논의하기 앞서 우선 중국내에서 이 책의 수장(收藏)과 유통 상황, 또 일실되는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서치요》가 일실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유통 범위가 지극히 협소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데, 그러한 협소한 유통 범위는 이 책의 일본 전래의 문제에서도 중요한 힌트를 제공한다.

위진남북조 시기를 거치면서, 특히 종이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중국에서는 문헌의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약 350년 동안의 남북 대치를 종식한 수(隋) 왕조에서는 남북조 시기에 생산된 문헌들을 수집하고 정리해 황실 비부에 보관하는데, 그 수량이 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수말의 전란으로 그 중 상당량이 소실되긴 했지만, 당나라가 성립한 후 무덕(武德), 정관연간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을 복구할 수 있었다. 상황

이 이렇게 되자 문헌의 결핍보다는 과다(過多)가 문제로 등장했다. 특히 당 태종과 같이 젊은 시절 주로 전장에서 활동한 창업기의 군주에게는 “선왕의 도”를 알기 위하여 비부에 소장된 문헌을 찾아보려고 할 때 “막막하여 바다를 건너는 심정”이 들 수도 있었다.<sup>9)</sup> 이러한 때 편찬된 《군서치요》는 초창기 당 태종에게 등대와 같은 책이 되어 국가 운영의 이론적 지침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국가 체계가 공고해지면서 《군서치요》는 그 실효성을 대부분 상실했던 것 같다.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대형 유서(類書) 《문사박요(文思博要)》 1,200권의 편찬이다. 위징을 비롯한 중앙정부 핵심 문관(文官) 대부분이 투입되어 정관 15년에 《문사박요》가 완성된다. 《군서치요》가 편찬된 지 꼭 10년만의 일이었다. 이 10년 동안 황제가 직접 읽고 실제로 참고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국력을 대내외에 밝게 드러낼 수 있는 대형 편찬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으로 살펴보았을 때, 당 황실에서 《군서치요》를 다시 언급한 것이 편찬 후 100년도 넘게 지난 천보(天寶) 연간인 것을 보면, 이 책은 완전히 잊혀 거의 용도가 폐기되고 만 것이다.

당 황실에서 《군서치요》를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인물은 현종(玄宗)으로, 이때의 기록이 왕응린(王應麟)의 《옥해(玉海)》 권54에 인용되어 있다.

《집현주기(集賢注記)》 천보(天寶) 13재(載) 10월 조(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집현원(集賢院)에 칙명을 내려 《군서정요(群書政要)》<sup>10)</sup>를 따로 쓰고, 거기에 인용된 《도덕경(道德經)》의 글을 발췌하도록 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집현원에서 위징이 찬한 《군서정요》를 진상했는데, 주상께서 보고 상찬하시면서 열 몇 부 정도 다시 만들어 태자 이하 각 왕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다.<sup>11)</sup>”

9) 《大唐新語》 <著述>: “太宗手詔曰: ‘朕少尙威武, 不精學業, 先王之道, 茫若涉海.’”

10) 즉 《群書治要》로, 唐 高宗 李治의 諱를 피해 “治”를 “政”으로 고친 것이다.

비록 현종은 《군서치요》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이 책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종도 태종과 같이 부분(副本)을 만들어 태자와 왕부에 배부하였지만, 《군서치요》는 여전히 지속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를 역시 《옥해》에 인용된 이필(李泌)의 《업후가전(鄴侯家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종(代宗)과 이필의 대화가 나온다.

주상께서 물으셨다. “내가 옛날 치국의 요체를 알고 싶어도 역사 전적이 너무 방대하여 결국 궁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는가?”

대답을 드렸다. “예전에 위징이 태자를 위해 여러 책에서 치국의 이치와 도리를 말한 부분을 뽑아내어 50권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군서치요(群書理要)》<sup>12)</sup>입니다. 이 책은 집현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sup>13)</sup>

현종과 마찬가지로 대종 역시 《군서치요》라는 책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 정도로 이 책은 집현원의 한 구석에 조용히 있었다. 사실 황제의 입장에서 《군서치요》와 같이 치국의 원리와 참고 사항이 간략하게 정리된 정치 지침서에 대한 갈증이 있었지만, 이를 열독하거나 강습하는 시스템은 갖추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군서치요》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집현원과 같은 황실 비부에서 실제로 근무하던 인력들이나 이필과 같은 저명한 장서가뿐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이필조차도 《군서치요》는 소장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대종의 물음에 이필은 《군서치요》와 함께 배준경(裴遵慶)의 《왕정기(王政記)》를 언급하면서, 《왕정기》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군

11) 《集賢注記》天寶十三載十月: “敕院內別寫《群書政要》, 刊出所引《道德經》文。先是, 院中進魏文正所撰《群書政要》, 上覽之稱善, 令寫十數本分賜太子以下。”

12) 역시 《群書治要》로, 高宗 李治의 諱를 피해 “治”를 “理”로 고친 것이다.

13) 上曰: “朕欲知有古政理之要, 而史籍廣博, 卒難尋究, 讀何書而可?” 對曰: “昔魏徵爲太子略群書之言理道者, 撰成五十卷, 謂之《群書治要》, 今集賢合有本。”

서치요》는 그저 집현전에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보면, 《군서치요》는 황실 내부에서만 간헐적으로 유통되던 책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군서치요》가 저록된 서목은 관장서목(官藏書目)이나, 관장서목을 수정하여 편찬한 사지서목(史志書目) 뿐이다. 이는 《군서치요》가 민간에는 전혀 유통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4)</sup> 《군서치요》는 기본적으로 황제와 번왕(藩王), 혹은 최고위층 정책입안자를 위한 책이었지, 공포하여 일반에 널리 읽히기 위한 책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유통범위가 황실 내부로 제한된 《군서치요》가 황실 내부에서조차 외면당하게 되면서 일실의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결국 남송(南宋) 때에 이르러서는 황실 비부에도 권11에서 권20까지 열 권 밖에 남지 않게 된다.<sup>15)</sup>

### III. 遣唐使와 중국문물의 수입

이렇게 중국에서 사라져버린 《군서치요》는 일본에 전래되어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다. 《군서치요》는 특히 율령국가 시기 일본의 황실에서 《효경(孝經)》, 《정관정요(貞觀政要)》 등과 함께 어시서(御始書)로 존중되면서, 제왕학(帝王學)의 교과서로 자리를 잡는다. 일본 율령국가의 수립은 중국의 모델을 이식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는데, 《군서치요》의 넓으면서

14)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群書治要》에서 節抄한 《左傳》이 敦煌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左傳》의 경우 《群書治要》는 杜預의 《春秋經傳集解》를 절초했는데, 그 일부가 현재 스타인(Stein) 문서 No. 133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群書治要》 整本이 敦煌까지 流傳되었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마도, 《群書治要》에서 《道德經》을 발췌하여 別寫했다는 《集賢注記》의 기록처럼, 《春秋經傳集解》의 경우도 《群書治要》에서 발췌한 節本이 유통되었을 것이다.

15) 王應麟, 《玉海》(揚州: 廣陵書社, 影印本, 2003) 권54: “《中興書目》: ‘十卷, 秘閣所錄, 唐人墨蹟. 乾道七年, 寫副本藏之. 起第十一止二十卷, 餘不存.’”

도 집약적인 성격[博而要]이 중국 황실에서는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했지만, 일본의 황실에서는 중국식의 국가운영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어느 책보다도 유용한 학습교재였기 때문이었다.

일본에서 《군서치요》를 읽었다는 최초의 기록은 일본 조오와(承和) 5년(838) “천황이 청량전(淸涼殿)에 나와 ……《군서치요》 제1권을 읽었다”<sup>16)</sup>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군서치요》가 편찬되고 약 200년 사이에 일본에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전래 과정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군서치요》 일본 전래의 구체적인 시기나 전달 경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논구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일본 요시카와 코오분칸(吉川弘文館)판 《국사대사전(國史大辭典)》인데, 여기서는 《군서치요》가 대체적으로 나라(奈良) 시대(710~784)에 견당사(遣唐使)에 의해 전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7)</sup> 이 《국사대사전》에서는 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본 율령국가 시기 견당사행이 일본에 중국의 문물을 수입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고, 또 나라시대가 견당사의 전성시기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추정은 일리가 있다.

특히 견당사가 《군서치요》를 일본에 전래한 매개체라는 사실은 거의 확실하다. 황실 내부에서만 유통되었던 책이 외국에 전래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외교사절이 거의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느 시기 견당사가 《군서치요》를 일본에 전래했는가이다. 《국사대사전》의 견해와 같이 나라 시기의 견당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이지만,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율령국가 시기 일본에서 견당사를 임명한 것은 모두 열아홉 차례인데,

16) 《續日本後記》 卷七, 《新訂增補國史大系》第三卷(東京: 吉川弘文館, 昭和9年(1934)), 承和五年六月壬子: “天皇禦淸涼殿, 令助教正六位上直道宿禰廣公讀《群書治要》第一卷. 有五經文故也.”

17)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 《國史大辭典》(東京: 吉川弘文館, 1993) 第四卷, 1016쪽.

그 중에서 중국 조정에 도착해서 외교임무를 온전하게 수행한 사행은 모두 열두 차례이다.<sup>18)</sup> 키미야 야스히코(木宮泰彦)에 따르면 견당사를 크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앞의 두 시기는 그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백제의 멸망과 관련한 사항 등 당시 동북아의 정치, 외교,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한 것이어서, 중국문물의 수입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세 번째 시기는 문무(文武) 천황(697~707년 재위) 때부터 코오켄(孝謙) 천황(749~758년 재위) 때까지 약 50년 동안 파견한 네 차례 견당사로, 이때는 마침 당나라의 전성시기였다. 일본에서는 이때부터 외교적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뿐만 아니라, 당나라의 문화를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도록 대규모의 유학생과 유학승(留學僧)을 견당사에 포함시켜 파견한다. 이 시기를 견당사의 전성시기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시기는 코오닌(光仁) 천황(770~780년 재위) 때부터 닌묘오(仁明) 천황(834~850년 재위) 때까지 약 60년 사이에 파견한 세 차례 견당사이다. 이 시기의 견당사는 조직과 규모에서는 세 번째 시기와 비슷했지만, 당나라의 정치적 불안정과 일본의 문화적 성장 등의 이유로 견당사의 문화 수입의 역할이 상당히 감소했다. 유학생과 유학승의 중국 체류기간도 세 번째 시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다.

《군서치요》의 일본 전래와 관련되어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견당사행은 물론 세 번째 시기이다. 그 중에서도 당 현종의 재위기간에 파견되었던 9차(717년), 10차(733년), 11차(752년) 견당사이다. 이 세 차례의 견당사행을 통해 일본은 중국문화를 엄청난 흡입력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이 중국 문화를 흡수하는 데에 이용한 수단은 주로 서적이었다. 《구당서(舊唐書)》

18) 열아홉 차례 중 세 차례는 실제로 부임하지 않았고(13차, 14차, 19차), 한 차례는 백제까지만 이르렀으며(6차), 세 차례는 “送唐客使”로 중국 사신을 전송하는 임무였고(6차, 14차, 16차), 한 차례는 “迎入唐使”로 중국 사신을 마중하는 임무였다(12차). 木宮泰彦, 《日支交通史》(東京: 金刺芳流堂, 大正15年(1926)), 119~133쪽 참조.

<일본전(日本傳)>에 기록된 개원(開元) 초기의 어느 견당유학생은 중국에서 하사받은 물품을 전부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과 바꾸어 귀국하기도 했다.<sup>19)</sup> 이렇게 열성적으로 중국의 서적을 일본에 수입했다면 《군서치요》도 이때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 IV. 유학생 출신의 중국문헌 전문가들

특히 개원연간 중국에 유학을 온 두 명의 견당유학생 출신 관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키비노 마키비(吉備眞備)와 아베노 나카마로(阿倍仲麻呂)이다. 이 둘은 일본 레이키(靈龜) 3년(717) 9차 견당사를 따라 유학생 신분으로 중국에 건너왔다.

마키비는 이후 18년 동안 유학을 하며 중국의 문화를 습득한다. 전후의 맥락을 통해 살펴보면, 《구당서》 <일본전>에 다량의 서적을 구매하여 귀국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유학생이 바로 마키비일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일본 덴표오(天平) 6년(734) 유학생살을 마치고 10차 견당사를 따라 귀국길에 오른다. 귀국 후에는 태학조(太學助), 동궁학사(東宮學士)을 역임하며 나중에 코오켄(孝謙) 천황이 되는 아베황자(阿倍皇子)에게 《예기(禮記)》, 《한서(漢書)》 등을 강수(講授)한다.

《속일본기(續日本記)》와 《부상략기(扶桑略記)》에는 마키비가 전래한 서적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유가 경전, 역사서, 산술학(算術學), 역학(曆學), 천문학, 어학, 점서(占書), 악서(樂書), 의례서(儀禮書) 등 학술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있다.<sup>20)</sup> 마키비는 자신이 가져온 서적의 목록을 작성하

19) 《舊唐書》 卷199 <東夷傳>: “所得錫賚, 盡市文籍, 泛海而還.”

20) 《續日本紀》, 《新訂增補國史大系》 第三卷(東京: 吉川弘文館, 昭和9年(1934)), 天平七年四月二十六日條: “《唐禮》130卷, 《大衍曆經》1卷, 《大衍曆立成》12卷, 《樂書要錄》10卷”; 《扶桑略記》, 《新訂增補國史大系》 第十二卷(東京: 吉川弘文館, 昭和7年(1932)), 天平七年四月條: “三史, 五經, 《名刑筭術》, 《陰陽曆道》, 《天文漏刻》, 《漢音書道》, 《秘術雜占十三道》”

고, 거기에 어떤 책에 대해서는 그 구득 과정도 적어놓은 듯하다. 그 목록의 일문이 《일본국현재서목록(日本國見在書目錄)》에 남아있다.

《동관한기(東觀漢記)》 143권. …… 이것은 《수서》 <경적지>에 실린 수이다. 현재 소장되어 있는 《동관한기》는 마키비 대신(大臣)이 가져온 것이다. 마키비 대신의 목록의 주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책은 모두 두 종류인데, 하나는 127권본으로 집현원에 소장되어 있는 것과 합치한다. 다른 하나는 141권본으로 집현원의 책과는 다르다. 그 밖에 날권 4권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앞의 두 종류의 목록에 나와 있는 것과 합치하지 않는다. 내가 당나라에서 여러 곳을 다니며 찾아보았는데, 결국 완질(完帙)을 구득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구하는 대로 베껴 써서 이 현재 우리나라 소장본을 얻게 되었는데, 모두 142권이다.

《동관한기》는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실되어, 마키비가 말한 127권본과 142권본의 정확한 모습을 알기 어렵지만, 어찌 되었든 중국문헌에 대한 마키비의 감식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길을 끄는 사실이 있다. 마키비가 집현원에 소장된 《동관한기》의 권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다. 마키비가 아무리 중국문헌에 정통했다라도, 일개 유학생의 신분으로서 비부의 서적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직접 집현원에 들어가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현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얻는 것이다. 사실 마키비에게는 이 두 가지 기회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행운이 있었다.

752년, 마키비는 견당부사(遣唐副使)로 임명되어 11차 견당사를 이끌고 다시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 이 11차 견당사는 중일간의 문화교류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장을 차지하는데, 왜냐하면 11차 견당사의 귀국길에 일본 율종(律宗)의 시조가 된 중국인 승려 감진(鑑眞)이 합류했기 때문이다. 감진은 그 전에도 일본 승려들의 권유로 다섯 차례나 일본으로 건너가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는데, 다행히도 이때는 도해(渡海)에 성공한다.

11차 견당사의 임명과 출국준비 상황이나 귀국 후 외교성과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는 율령시기 국가의 공식 역사서인 《속일본기》에 나오지만, 중국에서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국 승려인 사탁(思託)의 기록에 보인다. 사탁은 감진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간 승려 중 한 사람으로 감진의 전기(傳記)인 《대당전계사승명기대화상감진전(大唐傳戒師僧名記大和尚鑑眞傳)》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또 일본 최초의 승전집성(僧傳集成)인 《연력승록(延曆僧錄)》 10권도 썼는데, 현재 이 책은 이미 산일된 상태로, 그 일문(佚文)이 《부상략기》, 《일본고승전요문초(日本高僧傳要文抄)》, 《동대사요록(東大寺要錄)》 등에 보인다. 그런데 《동대사요록》 권1에 《연력승록》의 일문 《승보감신성무황제보살전(勝寶感神聖武皇帝菩薩傳)》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곳에 제11차 견당사의 행적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성무천황은) 또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사신들은 장안(長安)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기도 전에 배조(拜朝)하게 되었다. 당나라의 군주 개원천지대보성무(開元天地大寶聖武) 황제(즉, 현종)가 말했다.

“저 나라에 현명한 군주가 있으며, 사신들이 예를 올리는 모습을 보니 상당히 이체로우니, 일본을 올바른 예의를 갖춘 군자의 나라[有義禮儀君子之國]이라 부르겠노라. 정월 초하루에 다시 배조하여 새해를 경축하도록 하여라.”

황제가 명을 내려 일본의 견당사를 신라의 사신보다 상위에 자리하도록 했다. 또한 조형(朝衡)에게 직명을 내려 일본 사신들에게 황실의 비부 견학 안내를 맡게 하였다. ……또 직명을 내려 대사와 부사의 초상화를 그리고 잘 보관하여 이번 사행을 기념하도록 하였으며, 대사 후지와라노 키요카와(藤原清河)에게는 특진(特進), 부사 오오토모노 스쿠네 코마로(大伴宿禰胡萬)에게는 은청광록대부(銀青光祿大夫), 부사 키비노 마키비에게는 비서감(秘書監) 겸 위위경(衛尉卿)의 직급을 내려, 조형 등이 그 행정 실무를 처리하였다. 견당사가 귀국할 때 개원 황제는 친히 《일본 사신을 떠나 보내며[送日本使]》라는 시를 지어주기도 했다.

또한 홍려대경(鴻臚大卿) 장도완(蔣挑掄)을 특별히 파견하여 양주(揚州)까지 가는 길을 보살피게 했으며, 따로 회남(淮南) 지방에 공문을 보내어 사신들이 가는 곳마다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게 하라 명했다. 대사 키요카와는 사적으로 양주 용흥사(龍興寺)의 감진 스님 등에게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계율을 전해줄 것을 청했다. 754년 2월 4일에 일본에 도착했다.<sup>21)</sup>

이러한 사략의 기록은 당시 견당사 일행에게 직접 전해들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는 어감이 다소 강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 기록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현종이 일본 견당사에 보여준 특별한 관심과 호의이다. 견당사가 장안에 도착했을 때부터 일본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외교적 위상을 한껏 제고한 것이었다.<sup>22)</sup>

둘째는 현종의 허가로 일본 견당사가 집현원 등 황실의 비부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점이다. 중국의 문헌에 대한 관심과 식견이 높았던 마키비로서는 직접 비부를 참관했던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것이다. 시중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책을 찾아보거나 완질이 남아있지 않은 책의 비부에서의 소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마키비가 언급한 《동관한기》의 비부 소장 상황도 이때 직접 확인했을

21) 國書刊行會編, 《東大寺要錄》, 《續續群書類從》第十一(東京: 國書刊行會, 明治42年(1909)): “(聖武天皇)又發使入唐. 使至長安, 拜朝不拂塵. 唐主開元天地大寶聖武應道皇帝雲: ‘彼國有賢君主, 觀其使臣趨揖有異, 卽加號日本爲有義禮儀君子之國, 復元日拜朝賀正.’ 敕命日本使可於新羅使之上. 又敕命朝衡領日本使於府庫一切處遍看. ……皇帝又敕, 摸取有義禮儀君子使臣大使副使影, 於蕃藏中以記送遣. 大使藤原清河拜特進, 副使大伴宿禰胡萬拜銀青光祿大夫光祿卿, 副使吉備朝臣眞備拜秘書監及衛尉卿, 朝衡等致設也. 開元皇帝禦制詩<送日本使>……特差鴻臚大卿蔣挑掄送至揚州看取, 發別牒淮南, 敕處致使魏方進, 如法供給送遣. 其大使私請揚州龍興寺鑿眞和上等渡海, 將傳戒律. 自勝寶六年二月四日至聖朝.”

22) 《日本後紀》에 나와 있는 귀국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견당사가 신라의 사신보다 상위에 자리하게 된 것은 일본 쪽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한다.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한데, 견당사 일행의 비부견학을 안내하고 여러 가지 행정 실무를 처리한 조형(朝衡)이라는 인물이다. 이 조형이 바로 마키비와 함께 견당 유학생 신분으로 중국에 건너온 아베노 나카마로인 것이다. 나카마로는 마키비와는 달리 일본으로 귀국하지 않고 당나라 조정에서 관료 생활을 한다. 그는 좌보궐(左補闕), 의왕우(儀王友)를 역임하고, 비서성(秘書省), 교서관(校書館) 등에서 근무하다 11차 견당사가 오기 전에 비서감(秘書監)의 자리에까지 오른다. 즉 출사 후 주로 문적(文籍)을 관리하는 계통에서 일한 것이다. 마키비가 비부의 소장 서적을 소상히 알 수 있었던 것도 나카마로가 알려준 것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는 왕유(王維), 저광의(儲光義), 이백(李白) 등 당시 중국에서 문명(文名)을 떨치던 인사들과 교류하며 중국 문화의 핵심을 체득할 수 있었다. 나카마로는 11차 견당사를 따라 36년 만에 귀국길에 올랐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지만, 만약 그가 귀국에 성공했다면 당시 중국문화에 대한 일본의 지식은 더욱 더 풍요롭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위에서 언급했던 천보년간에 《군서치요》의 부분을 작성했던 사실을 떠올려 보자. 기막힌 우연으로 11차 견당사의 중국 방문과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집현주기》의 기록에 따르면 천보 13재, 즉 754년 이전에 《군서치요》의 부분을 작성했다고 했는데, 그 작업이 11차 견당사가 중국에 체류하던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비서감이었던 나카마로가 그 실무를 담당했을 수도 있고, 적어도 그 작업 사실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었을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군서치요》가 11차 견당사를 통해 일본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 다시 말해, 현종의 호의, 마키비의 중국 문헌에 대한 관심, 나카마로의 실무 역량 등 여러 가지가 최적의 조건인 것이다.

## V. 菅原家와 《群書治要》의 講授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군서치요》는 천보년간에 11차 견당사를 통해 일본에 전래되었을 개연성이 크지만, 직접적인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다.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해야 하는 사실은 11차 견당사의 활동시기와 일본에서 《군서치요》를 최초로 열독한 조오와 5년(838) 사이에는 90년 가까운 시간적 격차가 난다는 점이다. 우연찮게도 이 조오와 5년은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의 주인공 엔닌(圓仁)이 마지막 견당사와 함께 중국으로 떠난 해이기도 하다. 즉,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777년의 15차, 804년의 17차 견당사에 의해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일본 황실에서 《군서치요》를 강수하고 열독했던 상황을 살펴보면 그 가능성을 검토해보자.

일본 헤이안(平安) 시대 경연(經筵)을 열어 《군서치요》를 열독한 기록이 남아있는 천황은 모두 네 명으로, 닌묘오(仁明) 천황(810~850년, 833~850년 재위), 세이와(清和) 천황(850~880년, 858~874년 재위), 우다(宇多) 천황(867~931년, 887~897년 재위), 다이고(醍醐) 천황(885~930년, 897~930년 재위)이다. 경연에서는 강의를 담당하는 시독(侍讀)과 복습을 돕는 상복(尙復)이 참석하여 천황의 책읽기를 돕는데, 선택된 서적에 따라 참여하는 시독과 상복을 달리 했다. 일본 율령시기 의식서(儀式書)였던 《신의식(新儀式)》 권4 <임시상(臨時上)> “어독서사부경연(禦讀書事付竟宴)” 조에는 재미있는 기록이 있다.

천황이 독서를 할 때는 미리 박사와 상복을 정한다. 옛날의 예에 따르면, 칠경(七經)을 읽을 때는 명경박사(明經博士)를, 사서(史書)를 읽을 때는 기전박사(記傳博士)를 부른다. 《군서치요》의 경우는 때에 따라 명경박사와 기전박사 각각 한명씩을 부른다.<sup>23)</sup>

23) 《新儀式》, 《群書類從》卷八十(東京: 經濟雜誌社, 明治26年(1893)): “若有禦讀書事, 預定其書並博士、尙復。舊例, 七經召明經博士, 史書召記傳博士, 《群

《군서치요》는 그 내용이 여러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명경박사와 기전박사 둘을 참여시켜 시독(侍讀)하게 했던 것이다. 명경박사는 《군서치요》의 경부(經部)를 강수하고, 기전박사는 사부와 자부를 담당했다.

세이와 천황이 《군서치요》를 읽은 것은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 조오간(貞觀) 17년(875) 4월 25일 조에 보인다.

그 전에 천황이 《군서치요》를 읽었다. 참의(參議) 정사위하(正四位下) 행감유장관(行勘解由長官) 겸 식부대보과마권수(式部大輔播磨權守) 스가와라노 코레요시(菅原是善)가 이 책에 절초되어 있는 사서와 제자서를 강수했고, 종오위상(從五位上) 형부대보(刑部大輔) 스가노노 아손 스케요(菅野朝臣佐世)가 오경(五經)을 강의했다.<sup>24)</sup>

이 때 시독으로 《군서치요》 경연에 참석했던 스가와라노 코레요시는, 기전박사 가문인 스가와라씨(菅原氏)의 초석을 닦은 스가와라노 키요토모(菅原清公)의 아들이자, 헤이안 시대 저명한 문인이자 정치가인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眞)의 아버지이다. 사실 스가와라씨는 헤이안 시대 《군서치요》의 강습과 전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가와라씨는 8세기 이래로 수많은 문인과 학자를 배출한 명문가로서, 역대로 문장박사와 대학두(大學頭) 등 문관을 담당했다.

세이와 천황 이후 《군서치요》를 학습한 우다 천황의 기록은 미치자네의 전기인 《관가전(菅家傳)》에 보인다. 이 때 시독으로 미치자네가 참석했기 때문이다.<sup>25)</sup> 우다 천황은 아들인 다이고 천황에게 양위하면서 《관평유계(寬平遺誡)》를 남긴다. 자신이 경험한 치국의 요령을 글로 써서 전

書治要》或用明經記傳各一人。”

24) 《日本三代實錄》卷廿七, 《新訂增補國史大系》第四卷(東京: 吉川弘文館, 昭和9年(1934)), 清和天皇貞觀十七年四月廿五丁醜: “先是, 天皇讀《群書治要》, 參議正四位下行勘解由長官兼式部大輔播磨權守菅原是善, 奉授書中所抄納紀傳諸子之文, 從五位上守刑部大輔菅野朝臣佐世, 奉授五經之文。”

25) 《菅家傳》(東京: 前田家育德財團, 昭和十九年(1944)), 前田家所藏卷子本の 複製本: “(寬平)四年, ……奉敕清涼殿侍讀《群書始要》。”

해준 것인데, 여기에서 미치자네를 중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명문초(明文抄)》에 남아있는 《관평유계》의 일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천자가 비록 경사(經史)와 백가(百家)를 궁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단지 《군서치요》 정도만 읽고 익힐 만하니, 쓸데 없는 글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아니 된다.”<sup>26)</sup>

미치자네를 중용했을 뿐만 아니라 《군서치요》도 착실히 읽은 것을 보면,<sup>27)</sup> 다이고 천황은 아버지의 유훈을 잘 따른 듯하다. 다이고 천황의 아들인 미나모토노 다카아키라(源高明)의 사찬(私纂) 의식서(儀式書)인 《서궁기(西宮記)》 권10에는 공가(公家)에서 구비해야 하는 책으로 《군서치요》와 《정관정요》를 들고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 《군서치요》가 중시 되기에 이른다.

박사가는 일본 율령국가 황실에 지식의 공급을 담당하는 가문을 가리킨다. 각각의 박사가는 전문 영역을 분담하였는데, 기전도(紀傳道, 혹은 文章道), 명경도(明經道), 명법도(明法道), 산도(算道), 음양도(陰陽道), 천문도(天文道, 혹은 曆道), 의도(醫道), 가도(歌道) 등으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었다. 특히 천황과 황태자의 시독(侍讀)을 맡아 경연을 주재하는 것이 주된 소임이었던 기전도의 스가와라씨, 오오에씨(大江氏), 후지와라케(藤原氏)와 명경도의 나카하라씨(中原氏), 키요하라씨(清原氏) 등이 중국전적의 보존과 전수에 큰 역할을 한다. 이들의 특징은 각각의 전문 영역에 관한 문헌들을 대대로 저택에 보관하며 가학을 통해 면면히 전수한다는 것이다.

26) 《明文抄》 卷一 <帝道部上>, 《續群書類從》 卷八百八十六(東京: 續群書類從完成會, 昭和3年(1928)): “天子雖不窮經史百家, 而有何所恨乎! 唯《群書治要》早可誦習, 勿就雜文以消日月耳!”

27) 《日本紀略》後編一, 《新訂增補國史大系》 第十一卷(東京: 吉川弘文館, 昭和4年(1929)), 醍醐天皇昌泰元年二月廿八日戊辰: “式部大卿紀長毅雄朝臣侍清涼殿, 以《群書治要》奉授天皇. 大內記小野朝臣美材爲尙復, 公卿同預席.”

이 점을 고려하면, 《군서치요》의 경연에 스가와라씨가 자주 참석한다는 것은 그 가학과 《군서치요》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혹시, 스가와라씨의 성원이 《군서치요》를 일본에 전래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스가와라씨는 키요토모 시기부터 박사가로 자리를 잡는데, 이 키요토모가 804년 17차 견당사의 판관(判官)으로 중국에 다녀오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종(代宗)과 이필의 대화를 상기한다면, 이 17차 견당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군서치요》가 여전히 집현원에 소장되어 있었음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만 따져보면 이때 《군서치요》가 일본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17차 견당사가 장안에 있는 동안 덕종(德宗)이 붕어(崩御)하고 순종(順宗)이 즉위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sup>28)</sup> 다시 말해, 중국 황실은 견당사에게 《군서치요》를 건네줄 정도로 경황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 VI. 결 론

일본에서 율령체제가 붕괴한 이후 중세 무가시기에는 《군서치요》가 막부에서 존중을 받는다. 무가 시대의 《군서치요》로는 현재 모든 통행본의 조본(祖本)이 되는 카네자와(金澤) 문고본이 있다. 이 카네자와본에 달려 있는 훈점(訓點)은 중세 일본어의 한자음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에도(江戸) 시기에 이르러서는 토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군서치요》 간행에 열정을 쏟는데, 일본 최초로 자체 생산한 금속활자를 이용해 인쇄한 것도 《군서치요》였다. 18세기 후반기에는 오와리(尾張) 지방에서 《군서치요》가 목판으로 대량 생산되어 결국 중국에 역수출되기에 이른다. 이로써 대략 800년 동안 중국에서 사라졌던 책이 다

28) 《日本後紀》 卷12, 《新訂增補國史大系》 第三卷(東京: 吉川弘文館, 昭和9年(1934)), 恒武天皇延曆二十三年六月八日 조 참조.

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일본에 남아 있는 《군서치요》의 현존본들은 이렇듯 일본 역사의 각 시기마다 그 문화적 독특한 의미를 함장하고 있다.<sup>29)</sup>

이 글은 그러한 《군서치요》가 어떻게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는지를 탐색하였다. 우선, 《군서치요》가 중국의 황실 내부에서만 통용되었다는 점에 착안하면, 그것을 일본에 전래한 매개체가 견당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그 시기를 확정하는 것인데, 이 글에서는 개연성 높은 두 가지 경우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는 11차 견당사로서, 키비노 마키비와 아베노 나카마로리는 두 견당유학생 출신 관료의 합작을 통해 《군서치요》가 일본에 전래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책이 전래된 후 강습과 전승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박사가인 스가와라씨는 《군서치요》의 강수(講授)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 스가와라씨의 키요모토가 견당사행에 참가한 것에 착목한다면, 17차 견당사도 그 전래의 후보군에 올릴 수 있다.

사실 구체적인 기록이 새롭게 발견되지 않는 한 《군서치요》 일본전래의 문제는 이론적 추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 주목한 두 가지 가능성도 마찬가지이며, 또 각각 일정한 약점이 있다. 즉, 11차 견당사의 경우 책을 건네준 중국 쪽의 정황만을 살펴보면 그 개연성이 가장 크지만, 책을 건네받은 일본 쪽에서 그것을 읽은 최초의 기록과는 다소 시간적 거리가 있다. 17차 견당사의 경우는 일본 내의 《군서치요》 강수(講授) 상황을 살펴보면 그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지만, 중국의 상황이 큰 문제가 된다.

29) 《군서치요》가 일본에서 전승되는 상황은 좋고, <사라진 중국책, 일본에서 살아남다>, 《중국문학》 57집(한국중국어문학회, 2008)에 간략하게 되어있다.

< 參考文獻 >

- 劉昫 等, 《舊唐書》 (北京: 中華書局), 1975(1997).
- 歐陽修 等, 《新唐書》 (北京: 中華書局), 1975(2003).
- 王溥, 《唐會要》 (北京: 中華書局), 1955(1998).
- 劉肅, 《大唐新語》 (北京: 中華書局), 1984.
- 王應麟, 《玉海》 (揚州: 廣陵書社), 影印本, 2003.
- 阮元, 《擘經室外集》 (北京: 中華書局), 1991, 叢書集成初編本.
- 《日本後紀》, 《新訂增補國史大系》 第三卷(東京: 吉川弘文館), 昭和9年(1934).
- 《續日本紀》, 《新訂增補國史大系》 第三卷(東京: 吉川弘文館), 昭和9年(1934).
- 《續日本後記》, 《新訂增補國史大系》 第三卷(東京: 吉川弘文館), 昭和9年(1934).
- 《日本三代實錄》, 《新訂增補國史大系》 第四卷(東京: 吉川弘文館), 昭和9年(1934).
- 《明文抄》, 《續群書類從》 卷八百八十六(東京: 續群書類從完成會), 昭和3年(1928).
- 《菅家傳》 (東京: 前田家育德財團), 昭和十九年(1944), 前田家所藏卷子本の 複製本.
- 《東大寺要錄》, 《續群書類從》 第十一(東京: 國書刊行會), 明治42年(1909).
- 《新儀式》, 《群書類從》 卷第八十(東京: 經濟雜誌社), 明治26年(1893).
- 《日本紀略》, 《新訂增補國史大系》 第十一卷(東京: 吉川弘文館), 昭和4年(1929).
- 《扶桑略記》, 《新訂增補國史大系》 第十二卷(東京: 吉川弘文館), 昭和7年(1932).

- 木宮泰彦, 《日支交通史》(東京: 金刺芳流堂), 大正15年(1926).
-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 《國史大辭典》(東京: 吉川弘文館), 1993.
- 김광일, <《隋書》 <經籍志>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中國文學》 제 56집, 서울: 한국중국어문학회, 2008.
- \_\_\_\_\_, <사라진 중국책, 일본에서 살아남다>, 《中國文學》 제57집(서울: 한국중국어문학회), 2008.

### <中文提要>

《群書治要》五十卷是唐貞觀年間秘書監魏徵等奉敕編撰的一部群書節鈔彙編。此書摘錄了68種唐前古籍, 包括十幾種佚書、佚注在內, 具有非常珍貴的文獻價值, 但是在中國, 南宋以後就佚傳了。《群書治要》流傳到現在, 是因為東渡日本並保存得比較完善。因此, 日本學者非常關注此書在日本的流傳、刊行以及其現存各版本的。不過, 關於此書東渡的時間與渠道, 沒有文獻記錄其具體情況。所以大多數研究者維持慎重的態度, 在此書東渡時間與傳達人的考定問題上, 不太提出更加詳細的意見。本文利用一些有關資料, 進一步探討這個問題。《群書治要》中國久佚, 其主要原因在於此書流布得不太廣。本文把這一特點作為切入點, 提出此書東渡的兩種可能。一是第十一次遣唐使。第十一次遣唐使抵達長安時, 宮廷集賢院正書寫《群書治要》的副本, 而且兩位遣唐留學生出身的官僚是這次使行兩方的主要角色, 此書在天寶年間東渡日本的可能非常之大。另一個可能是第十七次遣唐使。在日本皇室講授《群書治要》的過程中, 菅原家起了非常重要的作用, 並且菅原家的奠基者清公作為判官來隨行第十七次遣唐使, 這次使行也值得一提是此書東渡的另一種可能。

주제어 : 《群書治要》, 遣唐使, 吉備真備, 阿倍仲麻呂, 菅原清公, 菅原氏